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0년 표어 §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느 2:17, 엡 5:26-27)

十 행동 지침

- 1. 약속의 말씀 위에 갱신되는 서울교회
-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 3. 성경 권위와 충분성을 믿고 개인, 가정, 사회의 변혁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iseoulchurch.or.kr



빛과 어둠 I

(요 3:17-21)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17-21)

1. 신자와 불신자의 마지막 결과

(1) 심판받지 않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순간 그는 벌써 정죄함, 죄를 지은 자의 부류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최후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요 5: 24).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사망이 쏘아 맞추려는 표적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옵니다. 죄를 맞추려고 사망이 오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사망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으니 마지막 심판은 자동적으로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2) 심판받을 자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죄 받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서 길이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벼후 3:9을 보

면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신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 이삭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옆에 잡초가 났습니다. 이 잡초를 뽑아야 하겠는데 잡초를 뽑다 자칫 잘못하면 알곡째 뽑힐까 봐 농부는 추수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잡초로 있는 인생들, 곧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므로 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실 일을 위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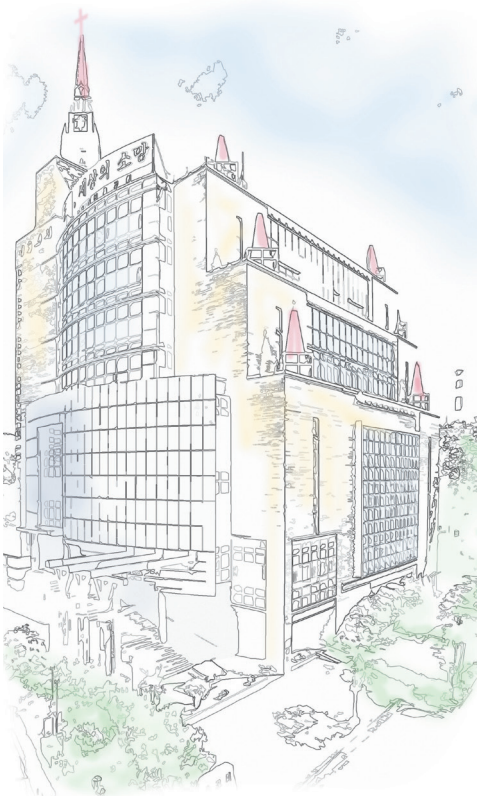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as been judged already’입니다. 좀 더 직역해서 표현하면 과거에 심판이 시작되어서 현재에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범죄로 심판에 떨어져 있던 자가 용서의 기회를 거부함으로써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오셨으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절하면 심판이 온다고 하는 이 패러독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부러워 보일지 모르나 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벌써 정죄함에 빠진 심판을 받고 있는 자니, 정작 그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목을 끈게 세우고 목소리를 높이고 굉장한 것처럼 하고 다녀도 모두 죽은 생명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대학 입시 치를 때 영어 단어 두어 개 더 알고 수학 한 문제 더 풀면 10점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일류 대학에 가기도 하고 그 10점 때문에 삼류 대학에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차이는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의견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밀한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폭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죄를 스스로 폭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심판 받게 됩니다.

(다음 주 계속)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3월 29일(주):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
3월 30일(월)-4월 4일(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기도

우리 교회는 국가적 과제인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관련 법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지켜왔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였고, 교회안에서도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켜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총회는 2020년 3월 29일(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주일"로 선포하였다.

이에 우리 교회도 동참하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란다.

또한 3월 30일(월)부터 4월 4일(토)까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한다. 교구위원회(위원장 : 오광환 장로)는 하단 표와 같이 교구별 릴레이 기도 순서를 정하였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요일별, 교구별로 예정된 시간에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성경·찬송가

- * 구약성경 : 시편 90편 1~13절
- * 신약성경 : 로마서 8장 19~26절
- * 찬 송 가 :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릴레이 기도 (교구담당표)

| 요일 | 일자 | 교구 |
|----|--------|------|
| 월 | 3월 30일 | 1교구 |
| | | 2교구 |
| | | 3교구 |
| 화 | 3월 31일 | 4교구 |
| | | 5교구 |
| | | 6교구 |
| 수 | 4월 1일 | 7교구 |
| | | 8교구 |
| | | 9교구 |
| 목 | 4월 2일 | 10교구 |
| | | 11교구 |
| 금 | 4월 3일 | 12교구 |
| | | 13교구 |
| 토 | 4월 4일 | 14교구 |
| | | 15교구 |
| | | 16교구 |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금홍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막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유성택·권진순 이주현·이주영 송재현·선순례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현금을 온라인계좌로 입금하시는 성도님들께 안내드립니다

현금입력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착오
가 없도록 입금하실 때 성명과 현금명목을 정
확히 기재하신 후 입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
니다. 문자가 6~7자가 입력되는 관계로 다음
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홍길동십일조
- 홍길동선교
- 홍길동주일
- 홍길동비전
- 홍길동지원교회
- 홍길동특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 나가 있는 청년이
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아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막 15:9-15)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엽전 두 닢을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온 지구촌을 강타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한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러짐으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강원도 흥천 소재 화방교회(강원노회 산하, 담임목사 김인동)가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교회당이 전소되고 차량 2대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화방교회는 강원노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 교회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100교회 후원 운동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후원해 왔던 교회이기도 해서 더욱 마음이 안타까웠다. 화방교회는 많은 농촌 교회가 그렇듯 미자립 교회로 노인층 성도만 15명가량 출석하고 있는 작은 교회이다. 청·장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농촌의 현실은 농촌 목회의 어려움을 점점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교회 구제위원회(위원장: 오광환 장로)는 화방교회에 성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6일(목) 화방교회 화재현장을 찾았다. 이 날 화재현장에는 강원노회(노회장: 이민수 목사) 노회장과 임원들, 주변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시어 교회 복구를 위해 논의 중이었다.

현재 화방교회는 주변 교회의 도움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한 상황이지만 초봄인데도 비닐하우스 안은 벌써부터 열기가 감돌았다.

강원노회 노회장 이민수 목사는 총회의 동반성장위원회에 화방교회 복구를 위한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고, 강원노회 산하의 여러 교회들도 모두가 사정이 어렵지만 십시일반 화방교회의 복구를 돕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교회 일행을 맞이한 김인동 화방교회 담임목사님은 서울교회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하시며 화재 소식을 듣고 타지역에서 제일 먼저 달려와 주었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이웃 교회를 섬기기 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서울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거듭나 마음껏 한국 교회를 섬기기를 소원하며 엽전 두 닢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심정으로 화방교회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성금은 스테반회(회장 김광태 집사)와 권사회(회장 김선영 권사)가 전액 지원하였다.

허숙 권사(편집부)



- ① 화재 전 화방교회
- ② ⑤ 화재 현장
- ③ 화방교회의 임시 예배 처소인 비닐하우스
- ④ ⑥ 성금 전달



천국시민양성_영·유아·유치부
새벽같은 보배들

영아부 심기연, 유아부 심기찬
 사이 좋게 예배드렸어요!



유치부 한세희
 엄마랑 아빠랑 예배도 드리고
 전도사님 말씀도 들었어요!



유치부 유다연,
 언니 서연이와 예배드렸어요!



유아부 김연준
 형아들과 즐겁게 예배드렸어요!



유치부 김레아
 언니랑 예배드렸어요!



유치부 유하민
 언니랑 같이 예배 잘 드렸답니다!



유치부 최무건
 이번주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유아부 정혜슬, 유치부 정혜윤
 예배드렸어요!



유치부 최은성
 오늘도 말씀 잘 섬겼습니다!



유아부 최아준, 아가 동생과
 같이 예배드렸어요!

* 지면 관계로 금주는 영·유아·유치부 인터넷 예배사진을 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년·초등부 사진을 담겠습니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4(토) 한국기독교학술원 정기이사회를 갖습니다.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와 국제울란바타르대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를 합니다.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2.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교회가 속히 회복되고 재건되게 하옵소서.
4. 국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읽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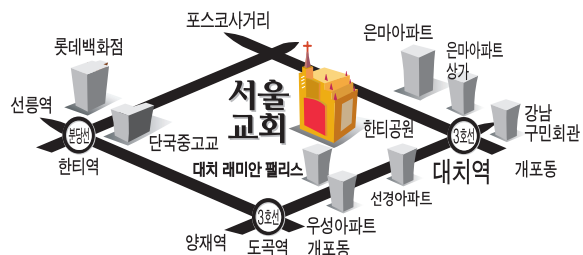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 | | 교구(부서): | | 이름: | |
|-------|----|----------|----|-----------|----|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3월30일 | 월 | 삼상 13-15 | | 시 66-73 | |
| 3월31일 | 화 | 삼상 16-17 | | 시 74-80 | |
| 4월1일 | 수 | 삼상 18-20 | | 시 81-91 | |
| 4월2일 | 목 | 삼상 21-24 | | 시 92-102 | |
| 4월3일 | 금 | 삼상 25-28 | | 시 103-107 | |
| 4월4일 | 토 | 삼상 29-31 | | 시 108-118 | |
| 4월5일 | 주일 | 삼하 1-3 | | 시 119 | |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배 | 오전 9시 | |
| | II 부 예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20분 | 8층(802호)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토) | 본당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